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 계획의 의미와 과제



서희진 hjseo@kku.ac.kr

건국대학교 교수 | 스포츠정책, 스포츠거버넌스, 스포츠사회화에 관심

들어가며

2023년 12월, 정부는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앞으로 5년간(2024~2028) 추진될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 종합계획이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스포츠진흥계획과 다른 점을 꼽자면, 스포츠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관합동위원회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¹⁾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최초의 법정 종합계획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세간의 관심은 이번에는 어떤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새로 도입된 정책이 어느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두기 마련이다. 스포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이번 발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 테다. 이러한 시점에서 스포츠 백년대계의 첫 장을 여는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의 의미를 새겨보고, 스포츠진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연합뉴스_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 2021년 8월 10일 제정

2) 2023년 12월 20일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개최와 함께 출범



스포츠 백년대계의 새로운 시작

대한민국의 스포츠(체육) 정책이 시작된 시기는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 제정을 기점으로 한다. 당시에는 문교부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국위 선양을 위한 전문체육 육성과 사회체육진흥정책³⁾을 추진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직후인 1989년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일명, 호돌이계획)이 수립되어 전문스포츠 중심에서 생활스포츠 중심으로 전환을 꾀하였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종합계획은 1993년 문민정부에서 수립한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 계획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스포츠정책의 비전과 세부 전략 목표가 새롭게 제시되긴 했지만,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의 기틀이 되는 생활스포츠를 기반으로 전문스포츠를 육성하고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는 스포츠진흥의 기조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⁴⁾은 “온 국민의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 활력 제고,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 스포츠, 국가 신성장동력, K-스포츠, 스포츠정신의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으로 명명된 5대 추진 전략과 전략별 3개씩 15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국민 스포츠 참여 확대, 엘리트 선수 육성, 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전과 방향성은 이전과 크게 차이가 없다.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 포스터

반면, 종전까지의 종합계획과의 차이점을 찾아보면 첫째,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은 이전의 계획이 생활스포츠, 전문스포츠, 스포츠산업 등 각각의 주제별로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주제별로 묶어서 제시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선진 수준의 전 국민 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맞춤형 운동 관리 서비스를 국민체력100과 국가건강검진을 연계하는 등 전문스포츠와 생활스포츠를 아우르는 대상자 정보(DB)와 시설,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연결하는 전략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유용한 통합적 접근 방식이다. 둘째,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은 종전의 계획을 고도화하고 토대를 단단히 다짐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노후 종합운동장의 복합

3) 1976년 대한체육회 산하 사회체육위원회가 사회체육진흥5개년계획을 발표

4) 관계부처 합동(2023.12.20.).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



© imagetoday

스포츠·문화·여가 공간으로의 조성, 장애인스포츠의 고도화 등 세부 추진 계획의 내용들은 선진화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노력의 일환이다. 세 번째로 과거 계획들은 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었지만,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은 민간, 시민 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위원회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게 다가온다.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스포츠를 국민 건강 증진과 행복 증진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한다는 점이

다. 즉 스포츠가 국민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으로써 스포츠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는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스포츠 가치를 실현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둘째, 스포츠산업을 105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스포츠 소규모 신생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하며,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스포츠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스포츠 백년대계의 새로운 청사진을 보여주는 시작점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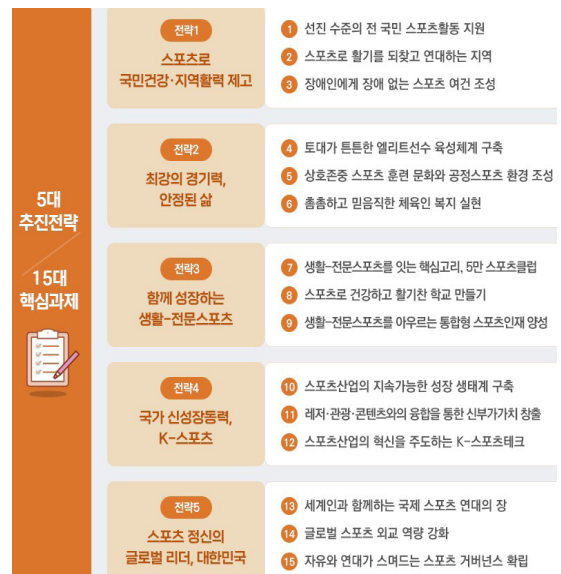
선진 스포츠 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스포츠 정책 체계(패러다임) 전환 위한 초석이 놓였다.” 이는 2021년 7월 23일 스포츠기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의 제목이다. 스포츠기본법 제1조는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의 목적을 함축하고 있다. 즉 스포츠기본법은 기존의 스포츠정책의 계승과 발전을 넘어 ‘체계 전환’을 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고 또 지향한다.⁵⁾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스포츠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은 스포츠 ‘정책’에 대한 제안을 넘어 대한민국 스포츠 체계 전환을 지향해야 한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매번 스포츠의 체계 전환을 선언하였지만, 아직 체계 전환의 핵심인 스포츠에 대한 인식 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전문, 생활, 학교 등 모든 스포츠 영역과 현장에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의 추진 전략이 체계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 활력 제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과 지역 수요를 고려한 스포츠시설 확충, 장애인스포츠 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

-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 지속가능한 전문스포츠 환경 구축을 위해 선수 저변 확대 및 육성 체계화, 상호존중의 스포츠문화 조성,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체육인 복지 지원 등 도모
-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스포츠: 생활-전문스포츠를 잇는 핵심 고리인 스포츠클럽을 5만 개까지 육성하고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초등학교 1, 2학년의 신체활동을 확대하고 체육교과 독립 편성 추진
- 국가 신성장동력, K-스포츠: 스포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레저산업 육성,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영역 개척
- 스포츠 정신의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5대 추진 전략 및 15개 핵심과제

5) 서희진(2022.2.10.). 스포츠기본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필요조건들.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제15차 스포츠정책포럼 발표자료에서 일부 발췌.

위의 5대 추진 전략을 요약하면,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한 국민 스포츠 활성화, 전문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스포츠클럽 확대와 초등학교 저학년 체육활동 강화, 스포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 그리고 국제적 위상 및 글로벌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추진 전략과 핵심과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중전의 종합계획과 다르게 체제 전환을 기대할 정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 기본계획 추진의 핵심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면 실현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전의 중

합계획에도 선진화된 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많은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에 부딪혀 더 나아가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출범은 바로 이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민관합동위원회로 구성되었으나, 실무적 차원의 협력·조정·보완이 이루어지는 차관회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정책위원회의 산하에 지역별, 직능별 자문회의와 전문 회의를 촘촘히 구성하여 전문성, 일관성, 책임성, 투명성이 강화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통해 완성되도록 하여



© Gettyimages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스포츠환경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 R&D, 스마트헬스케어, 무역·유통활성화, 전문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해당 부처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현재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제외되어 있어 미래 스포츠환경을 고려한 관련 분야 스포츠정책 대응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⁶⁾이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

안타깝게도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출범과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이 추진되는 최근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초저출산, 초고령화와 같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스포츠 분야도 예외일 수 없으며, 이미 그 영향을 받고 있다. 매년 전국에 걸쳐 각급 학교가 폐교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 수도 급격히 줄어들어 예전처럼 학교 스포츠 경기나 운동회는 자체적으로 어려워 여러 학교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세계 7대 스포츠강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스포츠 꿈나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생애주기별 스포츠 참여는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할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고도의 기술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정보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

떻게 할지 등 앞으로 고민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잔뜩이다.

무엇보다 최근 세계정세와 국내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긴축 재정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아마도 당분간은 어려울 테지만 혹여 수립된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하고 좌초하지 않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계획 수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 안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다양한 주체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발맞춰 스포츠에서도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의 재원과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기업 및 시민 사회의 참여를 확대하여 스포츠 발전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공감대와 스포츠문화와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미 닳을 올렸고, 지금은 목적지를 향해 다 함께 뜻을 펼칠 때다.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사진_대한민국 정부브리핑

6) 김대희(2024.2.15.).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대안. 2024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동계워크숍 자료집.